



01

## 전남도, 오리농가 사육제한 추가 강요 논란

나주·영암·함평·무안지역 오리농장 각서 미제출 시 입식승인 불허



최근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라남도는 나주·영암·함평·무안지역을 AI 위험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육제한을 강요 및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 오리협회, 도청에 항의공문 ‘강력 규탄’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2017년 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해로 6년째 시행중에 있는데 매년 전국의 30%에 육박하는 200여 오리농가들은 비록 어렵지만 정부의 사육 제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최근 AI 방역지역이 100개 이상 설정되어 오리의 경우 닭과 달리 반경 10km 내 신규입식마저도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리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자체예산을 활용해 현재 해당 지역에서 사육제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제한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사육제한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오리를 사육하다가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처리비용 50%를 계열업체가 부담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오리의 입식을 불허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업체들이 살처분 처리비용의 일부를 농가들과 고통분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농가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로 시달 된 고위험지역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계획 공문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군이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오리농가들에게 통제초소 설치를 강요중이다. 이 또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오리의 신규입식이 금지됨에 따라 오리 계열업체들은 임시방편으로 농장 앞에 텐트를 쳐서 입식승인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전남도청으로 항의공문 발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살처분처리비용 부담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오리의 신규입식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는 전남도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12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회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나주, 영암, 함평, 무안지역의 오리농가수는 총 186호로 이중 현재 사육제한에 참여중인 농가 49호를 제외한 오리농가는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중인 농가를 포함하여 137호(약 240만수)이다.

이에 김만섭 회장은 매년 겨울철마다 유독 오리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이미 오리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오리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하는 전남도의 만행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본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법적대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별첨 1] 살처분처리비용 부담 각서

고위험지역 오리 사육계한 지원사업 마찰여  
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방역 이행 동의서

본인은 고위험 지역(나주시, 청양, 무안, 삼천)에서 소재한 오리 사육농가( 해당 농가 계열화사업자로 고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 )에 있어  
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사항을 이해 할 것을 논의합니다.

1) 고위험 지역(2~3일)에 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관리) 체계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고온 살균, 소독 실시**
  - 고온 살균기 1회 대비 고온 살균기, 고온 살균기로 차량 바닥과 차체를 2회 소독
  - 고온 살균 기준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은 고온 살균기로 차량 바닥과 차체를 2회 소독
- ② **농장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번호, 운송자 및 품목에 대한 방역표 및 운행인증번호(차종, 대형화소, 일시)**
- ③ **소독,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같은 농장의 무질환구와 천연석 청탁지 지지 암과 청탁구(보통은 흰색)는 원래(시판구)로 표기 조치**
- ④ **축산 출입 시 진료증 첨부 가능 여부 및 소독 실시**
  - 진료증 첨부 시 진료처와 출입처 내에서 신고처의 고지 모범방법을 충족
  - 축사 담당자는 출입 청탁구(보통은 흰색)에 표기, 청탁구 내에 청탁증을 출입 즉시 청탁기록을 첨부
- ⑤ **속사 내에 기생·경생(양치경생류), 보더리기, 짖을 위험시 아동으로 예인으로 및 사료 3·부·기생·경생에 중증화 시 청탁·소독**
- ⑥ **감기증상으로 출현하는 손상증과 경증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출입하는 경우 예방·수색·화재 예방 및 출입 차량은 차량 소독 및 청탁증 첨부 시 관리 모범방법**

2) 고위험성 조작인증文书가 발행하여 영업증명, 바이오마스크, 방역이력지·방역증명서·내화장·내화장에 개인사업자는 살처분비리비 50%, 부단

## [별첨 2] 전남도 발송공문

 <p><b>한국오리협회</b> Korea Duck Association</p> <p>한국 오리 협회</p> <p>한국내외 전시·대회전시회 모집과 제작 및 출판</p> <p>한국 오리 협회</p> <p>한국내외 전시·대회전시회 모집과 제작 및 출판</p>	
<p><b>제 46回 전면화도 사육체계 모의논가 회제 출판에 대한 협의회를 열겠습니다.</b></p> <p>1. 출판선언과 출판방법의 방안을 위한 전달회도 노트에 글자 드립니다.</p> <p>2. 출판하고 정부나 사육체계 대상으로 강연 세션 세미나에서, 해양 푸드 등 축산부를 주기 위해 전국 농가가 참여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리작고 크기 수준이 미흡한 강연하고 있으니 그 조건으로서는 서면 출판방법을 별도로 고려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푸드, 정부, 오리협회가 대상으로 사육체계 출판여건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p> <p>3. 전달회 노트와 제46회 출판선언문을 출판으로 출판관련부에서 배포합니다.</p> <p>4. 출판하는 계획적인 출판사와 글제작과 사육체계 출판을 강조할 경우 출판하는 경로도 이동으로 수록할 예정입니다. 모든 출판경로의 사육체계 출판 전시회와 출판회사를 출판사로서 출판기관과 함께 규모를 증가, 기관간 출판 협업을 확장하겠습니다. 예컨대 사육체계 출판을 지원하고 특히 일드로 출판한 사료는 사육체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p> <p>5. 아래 표는 사육체계 출판기관에서 전시회 출판기준도 등을 농가 선정에 영향한 근거로 요구하는 바이며 사육체계 출판에서 강연 내용은 개별적으로 있을 드립니다.</p> <p>6. 제 46회 출판기준      가. 추가기한 사육체계 출판 기한에 유도 철회      나. 사육체계 출판에 대한 법적, 논의적 근거 제시      노. 제 46회 출판기준 제 1~10회의 출판기준과 출판 회전 회의에서 본문 출판, 출판사명, 출판여건 등 출판처에서 강연내용에 대한</p>	
 <p>(시)한국오리협회 한국내외 전시·대회전시회 모집과 제작 및 출판</p>	
<p>기호      적용일      규모      모집일      출판일      제작일</p>	
<p>(제작 12월 18일) 제작(제작 12월 18일)      출판(출판 12월 18일)      모집(모집 12월 18일)</p>	

### [별첨 3] 고위험지역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계획